

■ 법률 칼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1. 개요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으로 우선 일자(Priority Date)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했다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초청장(Immigration Petition)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초청장이 승인이 나고 승인서가 National Visa Center로 송부되면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첫째 단계

우선 부모님을 초청하는 이민 청원을 미국에 접수하여 합니다. 이는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이민국은 자녀의 시민권자 신분을 시민권 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자 자녀와 부모와의 부모/자식 관계를 한국의 가족 관계 증명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초청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신분을 한국 여권/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 이 이민청원서/초청장을 승인을 해 줍니다.

3. 둘째 단계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은 이승인서를 미국 국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를 송부합니다. 그러면 30일 전후하여(요즘은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는 케이스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케이스 번호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아카운트를 열게 됩니다. 이 아카운트로 앞으로 진행할 케이스의 이민 비자 소속 비용을 National Visa Center에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아카운트로 DS260이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 이 아카운트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한 신상 서류를 그리고 초청 자녀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을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 서류

들이 모두 수합되면 케이스가 리뷰를 위해서 완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National Visa Center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 영사과로 케이스를 송부하고, 송부와 함께 케이스가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후에 서울 미 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4. 셋째 단계

이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자녀의 재정 보증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간 밀봉된 건강검진 서류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범죄기록 여부인데 이는 경찰청 회보서 그리고 수사기록 회보 등을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혹시라도 부모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기소/기소 유예/벌금형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영사가 부모님의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한 택배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붙든 여권과 첫 입국 시에 이민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든 소포를 받게 되십니다. 이후에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배달될 주소를 확인하고 그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6. 나가는 말

이민 수속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미국과 국무부의 실수가 빈발하고 있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 시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리허설 등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터뷰장에 시민권자 자녀 참석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기관은 노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으며 관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의학의 발전과 함께 노령 인구가 늘면서 퇴행성 질병을 앓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무릎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더욱 쉽게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며, 비만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관절에 과부하가 생길 경우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점점 얇게 되면서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과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관절염 초기에는 주로 경구 및 국소 약물, 관절 내 약물 주사 혹은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과도한 체중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이고, 몸무게를 10% 정도 줄이면 통증을 약 50% 정도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연골을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고강도의 운동은 무릎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자제하여야 하지만 적당한 강도의 근력 운동은 관절 주위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 관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서는 실내 자전거나, 물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등이 관절에 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약물 치료는 캡사이신 크림이나 불타렌 젤 등의 경피(topical) 제품이 경구형(oral) 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등의 경구형 비스테

로이드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구형 비스테로이드 진통제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심장, 신장, 간, 소화기관 등 여러 장기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둘록세틴(Duloxetine) 등의 세로토닌 노르에페피린 재흡수 억제제(SNRI) 계열의 약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등의 보조제를 먹는 것이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많으신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런 보조제가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드시라고 권유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보조제의 경우 부작용이 대부분 미미하고 개인에 따라 효과를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선호하면 드시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도 통증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요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관절경 수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주치의나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하여 같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사장님, 뵙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께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 (323) 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